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8. 21	. / (총 14	1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팀 장	김 성 훈		044-200-2293
기획총괄팀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김 정 일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인천광역시	단 장	안 광 찬	전 화	032-440-7801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담 당 자	이 은 실		032-440-784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전 화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손 일 룡		044-202-3741
지원총괄팀	담 당 자	박 동 희		044-202-3743
외교부	과 장	박 재 락		02-2100-7581
재외국민보호과	담 당 자	정 근 범		02-2100-758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 장	엄 열		044-202-6620
통신정책기획과	담 당 자	노 진 홍		044-202-66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긴급 대응조치 및 협조사항, ▲비대면 종교활동 및 초중고 온라인 학습지원. ▲재외국민 확진현황 및 지원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 수도권 긴급 대응조치 및 협조사항, ▲비대면 종교활동 및 초증고 온라인 학습지원, ▲재외국민 확진현황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12종의 고위험시설 운영이 금지되었으나, 일부 업소에서 업태를 변경하여 영업하는 등 변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식약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의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유감이며, 지자체 등 관계부처 에서는 정의로운 공권력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당장 병상이 부족할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관계부처는 정확한 통계를 수시로 발표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해달라고 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동대응상황실에서 지시·협조 요청하는 사항이 현장에서 즉시이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 □ 한편, 정 본부장은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노력을 했음에도 의협,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복지부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 마지막으로 정 본부장은 이번 주말까지 5급공채 및 외교관 시험, 검정고시,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전국에서 30만명 이상의 응시생이 시험장에 집결하게 될 상황임을 지적하며, 방역당국과 시험주관 기관은 시험장 내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응시생에게 시험장 방역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8월 21일(금) 0시부터 8월 30일(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금지하였다. 집회금지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유선으로 집합 제한 행정조치를 안내하고, 8월 23일(일)부터 현장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750여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한편 8월 21일(금)부터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하여 서울시청 청사 내에 예식업계 위약금 분쟁 조정을 위한 '코로나19 상생중재 상담센터'를 운영해, 피해구제 상담 및 전문변호사 법률 검토 등의 지워을 실시한다.
- 인천광역시는 8월 20일(목) 15시부터 인천광역시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와 집회·공연 등 많은 사람이 모인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행정조치를 발령하였다.
 - 이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검사 및 격리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계속해 가고 있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료인력과 자원 확충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도민·의료인·병원 등에 요청하였다.











평생친구

- 또한, 역학조사·검사거부·검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기초지방 자치단체와 경찰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2 수도권 긴급 대응조치 및 협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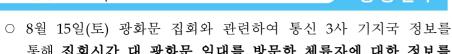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수도권 긴급 대응조치 및 협조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 발생** 하고, 직장·종교시설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파**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광복절 집회 등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집회에서의 감염 위험이 큰 상황이다.
 -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명단과 집회참가자 명단을 신속히 확보하고, 검사와 자가격리 등 방역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8월 20일(목) 방역당국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역학조사 자료 확보를 위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도하였 으나 교회 측의 비협조로 추가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 * 총13명(중수본 2명, 방대본 역조관 등 2명, 서울시 6명, 경찰청 포렌식팀 3명)
 - 이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 조치하였고,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검사, 자가격리 등 불응자에 대해서는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대응해 나가는 한편,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 검사불응 : 벌금 200만 원. 자가격리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평 생 친 구



- 통해 집회시간 대 광화문 일대를 방문한 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검사독려 문자를 발송(8.20.)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 14,911건(8.15 12시~17시, 30분 이상 체류자)의 가입정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은 스스로와 주변의 안전을 위해 **검사를 신속히 받아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서울의 집회 참석자들은 **중상과 관계없이 즉시 가까운 선별 진료소를 찾아 검사**받기를 당부하였다.
- □ 정부는 추적과 검사, 격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치료를 위한 수도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수도권의 **중환자 치료병상**은 현재 **74개 병상의 여유**가 있으며, **1주일** 이내 **30개** 병상, **2주일** 이내에는 추가로 **30개** 병상을 확보하여 **총 60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수도권의 **감염병전담병원**의 입원병상은 현재 *672개* 병상의 여유가 있고, 90여 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 경증·무증상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다음 주까지 **총 4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758명의 추가 입소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평생친구

3 비대면 종교활동 및 초중고 온라인 학습지원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문 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교육부(장관 유은혜)로부터 비대면 종교활동 및 초중고 온라인 학습지원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수도권 교회에서의 예배는** 비대면으로만 허용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과 5월에 실시했던 **온라인 종교활동 지워을 다시 추진**한다.
 - 중소 종교단체의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화경을 지원한다.
 - 카카오TV, 네이버TV 등 방송 기반(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 상담실(국번없이 1433-1900)를 운영하고, 종교 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월 50기가의 자료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 아울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인빌딩) 망구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한다.
 - 이러한 지원은 교회의 대면 예배금지 등 상황의 급박함을 고려하여, 이번 주말인 8월 22일(토)부터 10월 31일(토)까지 2개월간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 1차 지원(4.8~5.29) 시 온라인 방송 안내지원 536건, 데이터 지원 및 통신망 품질개선 216건 등 총 787건을 지원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중소 종교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한 바 있다.















평 생 친 구

- □ 이와 함께 통신3사와 협력하여 스마트 폰으로 접속 시 한국교육 방송(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의 데이터 사용량을 차감하지 않는 조치가 당초 8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4월부터 7월까지 동 조치를 운영한 결과, 해당 사이트의 총 이동통신 (모바일) 트래픽량이 평상 시 대비 1,000%이상 증가하는 등 원격교육과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수도권 및 부산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 안정적인 온라인 수업에 필수적인 **EBS**,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등을 주요 학습사이트를 대상으로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지속하며,
- 또한, 건전한 실내활동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자가 자가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이언스ALL(과학), 엔트리(SW·코딩교육), 커리어넷(진로 상담) 등 관련 사이트도 데이터 무과금 조치로 계속 지원한다.
- 이에 따라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은 물론 교사, 학부모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용량에서) 별도로 데이터 사용량이 차감되지 않아 추가 과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평생친구

4 재외국민 확진현황 및 지원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외교부**(장관 강경화)로부터 **재외국민** 확진현황 및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20일(목) 기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58개국·지역에서 557명이 확인되었고,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101명, 미주 233명, 유럽 80명, 중동 120명, 아프리카 23명 등으로 나타났다.
 - 다만, 재외공관 신고 사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확진자 본인 감염사실 공개 기피,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정보수집 제약, △외국 정부의 통계 부재·미흡 등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 정부는 해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보건당국·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중증환 자 입원 지원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 (사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한인회-현지병원간 의료서비스 협력 양해각서 체결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검사비용 할인 혜택 확보 및 입원 편의 제고
- 이와 함께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을 위 하여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에서는 재외국민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를 대상으로 화상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기관에 의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 * 8.20.(목) 기준 총 26개국에서 재외국민 88명 상담 완료

















평 생 친 구

- 해외에서 확진된 국민의 국내 이송*과 감염 고위험 지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과 격리자·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생필품 지워도 실시하고 있다.
 - * 이라크(8.1.)·멕시코(8.8.)에서 근로자 각 1명 국내 이송 절차 지원 완료
 - ** 마스크 수급안정TF의 승인을 받아 8.17.(월) 기준 64개 국가·지역에 마스크 약 100만장 지원
-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진료 강화방안**과 심리상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방역물품 및 생필품 제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사항
 - 3. 국민 행동 지침
 - 4.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2.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 3.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 (行)·3금(禁) 수칙 포스터
 -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8.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평생 친구

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가 보건소에서 확진 받고 백백원에서 재컴했는데 음성판정 오늘저녁 <u>7시</u>에 나왔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나오시는분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재건 방으세요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평생친구

붙임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8.19~)

※ 음영 표시는 8.19일 0시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조치

-	² 분	조치사항(수도권)				
집합· 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다중 이용 시설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				
기관, 기업	공공	O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민간	O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평생친구

붙임3

국민 행동 지침

[국민 행동 지침]

-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②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 ③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 12 -











평생친구

붙임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김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충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다.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 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평생친구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교 제27도구()(급급등 1기 시 (3도 3개 급기 및 결식 3) 간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